



표지 디자인이 예쁜 책 1000권과 박경리, 황석영, 김용택 등 한국 대표 문인들의 일러스트로 꾸며놓은 알라딘 중고서점 입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라딘, 금남로에 독서 마법 전다

광주시 동구 총창로 옛 삼복서점 입구. '오늘 들어온 책 1290권'이라는 표시가 눈에 확 들어온다. 입구에 들어서니 온갖 종류의 책들이 왼쪽 벽면을 가득 채웠다. 표지 디자인이 예쁜 책 1000권으로 가득한 벽면 반대편엔 고은과 박경리, 황석영, 김용택 등 한국 대표 문인들의 일러스트가 빼곡하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니 210평 규모의 매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시 문을 연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이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옛 삼복서점 자리에 '알라딘 중고서점 광주점'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알라딘은 국내 인터넷 서점 중 교보·예스24·인터파크 다음으로 중고책 등록건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서점.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첫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낸 뒤 신촌·강남, 부산, 경기도 분당에 이어 6번째 여는 오프라인 점포로, 매장

시켜 놓았다. 중고책의 특성을 살려 한 권에 '품절절판도서' 코너를 마련했고 오래된 가요·팝·클래식 음반과 DVD도 비치해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헌책을 파는 곳뿐 아니라 고객이 집에 있는 책을 가져와 팔 수 있는 코너가 눈에 확 들어온다. '주인 맘대로' 결정하는 기존 헌책방 운영 방식이 아닌, 매입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도 갖췄다.

초·중·고 참고서, 수험서, 주간·주간·월간 등 잡지류, 전집류는 받지 않다가나 신간 베스트셀러는 새책 판매가의 50%에 사고 알라딘에서 출간 뒤 6개월 이내 구입한 신간 베스트셀러를 6개월 내에 되팔 때는 구매가의 55%에 되산한다는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외 개정판이 있는 절판도서나 5000원 미만 도서, 무협지, 한국판타지소설 등도 구입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놓는 한편, 판매량, 품질 등급, 보유 재고량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적정 가격에 따라 구입한다는 게 알라딘측 설명이다.

알라딘 관계자는 "2008년 인터넷에서 중고책 판매를 시작한 뒤 헌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해온 만큼 광주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점 내부

국내외 젊은작가 교류 플랫폼 '미테우그로'

오늘부터 해외작가 전시·퍼포먼스·워크숍

대인시장 내 대안 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Mite-Ugro)의 활약이 눈부시다.

열악한 지역 미술계에서 공공 기관 등 주도가 아닌, 외부 재정 지원 없이 다양한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외 작가간 교류에 적극 나서면서다.

미테우그로(대표 조승기)는 26일 태국 출신 젊은 작가 8명을 초청, 'Art 20kg'전을 여는 것을 비롯, 해외 작가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워크숍을 연다.

'Art 20kg'전은 젊고 실험적이지만 돈 없고, 이름 없는 젊은 작가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대안 예술 공간

작가들 담게 1인당 항공기 수화물 허용치인 20kg에 주목한 전시로 다음달 16일까지 열린다.

전시 뿐 아니다. 태국 갤러리 아티리 디렉터 푸나파 파리메타차이와 태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알렉스 페이스 등도 대인시장을 찾아 그래피티 퍼포먼스를 벌이고 광주비엔날레를 패러디한 '스퀘어테이블'전을 진행중인 이조흥 작가와 협연도 펼친다.

지역 젊은 작가들과의 인적·예술적 교류 공간도 마련된다.

29일에는 오후 7시 필리핀 마닐라 대안공간인 플랜팅 라이브 큐레이터 리안 라디아, UP 바카스 뮤지엄 연구

원 루이스 마리셀리노, 설치미술작가 리라 가르셀라노와 지역 젊은 작가, 기획자, 대학생 등이 함께 대안공간 활성화에 힘쓴다.

미테우그로는 이외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 영 아티스트 페스티벌'등 굵직한 기획전을 추진하고 해외 작가들을 초청, 속속을 마련해두고 전시공간과 작업실을 제공해주면서 국내 작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작은 대안공간이 광주를 비롯, 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젊은 작가들을 한 공간에서 어울리게 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바이올린과 첼로의 슬픈 대화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 29일 유스퀘어에서 작곡 발표회

지난 2008년 조선대에서 장년퇴임한 김승일 명예교수는 같은 해 5번째 작곡 발표회를 열었다. 4번째 작곡 발표회 후 무려 16년만이었다. 2년 뒤 6번째 발표회를 열었고 올해 7번째 발표회(29일 오후8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를 갖는다.

지난 2010년 발표회에서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조화를 실험했던 김교수는 당시 '징'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었다. 이번 공연에서 그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피아노와

징으로 그린 몽크의 절규'가 바로 그 작품이다. 연주자는 피아니스트 김연씨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안연씨다.

이번 작곡 발표회에서 눈길이 가는 곡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다이얼로그다. '어느 연인들의 슬픈 대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곡은 '여자의 슬픈 이야기', '남자의 탄식'등 5개의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약기로 연인들의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광주시향 수석)씨와 첼리스트



이후성(광주시향 차석)씨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호남신학대학교가 진행하는 입문 강좌 '풍만 클래식'을 진행하며 하며 클래식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8604-5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山寺에 치유의 소리 울려 퍼진다

내일 구례서 '화엄제'...티베트·인도 등 영성음악

국제영성음악제인 '화엄제 2012'가 27일 오후 3시부터 구례군 화엄사에서 열린다.

화엄제는 2006년 '첫발자국'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영성(靈性) 음악제로, 음악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영성음악은 인간이 지닌 치유력을 일깨워 물질문명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에고(EGO)의 자장가' '영혼의기상곡'으로도 불린다.

'내려놓으니 아름답구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화엄제도 이런 맥락

에서 한국과 티베트, 인도의 '내려놓는' 영성 음악을 선보인다.

영화 '리틀 부다'에서 만트라(티베트의 명상음악)를 부른 대표적 영성 음악가인 다현 샤 님사, 인도 전통 음악의 정수인 가수 슈바 조쉬, 월드 뮤지션인 마니쉬 비아스 등이 참여한 다.

한국에서는 제주큰굿 전수조교인 서순실씨, 한승식 중앙대 교수,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화엄제가 열리는 27일에는 100명 선착순에 한해 1박 2일 템플스



테이도 진행한다. 문의 061-782-7600. /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 - 9940	충장점	062) 227 - 9970
목포점	061) 262 - 9200	장흥점	080) 222 - 9975
서울점	02) 765 - 9940	순천점	061) 752 - 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